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2. 27.(화)

목포해수청, 완도항 출입항로 대형 유도등부표 정비 첫발

- 노후 대형 등부표 전면 교체, 완도 제주 간 여객선 항로 안전항해 지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직무대리 이영길)은 완도항 출입 분기점에 위치한 완도항유도등부표 정비 공사에 2억을 투입해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도항유도등부표는 높이 14m, 직경 10m, 중량 100톤(소형의 약 10배)의 해상부유식 구조물로, 통항로의 분기점과 안전수역임을 알리는 해상 교통표지다.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수년간 해상에서 운영돼 부식·탈색된 등부표를 전면 교체해 완도~제주, 완도~청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대형 화물선의 항행안전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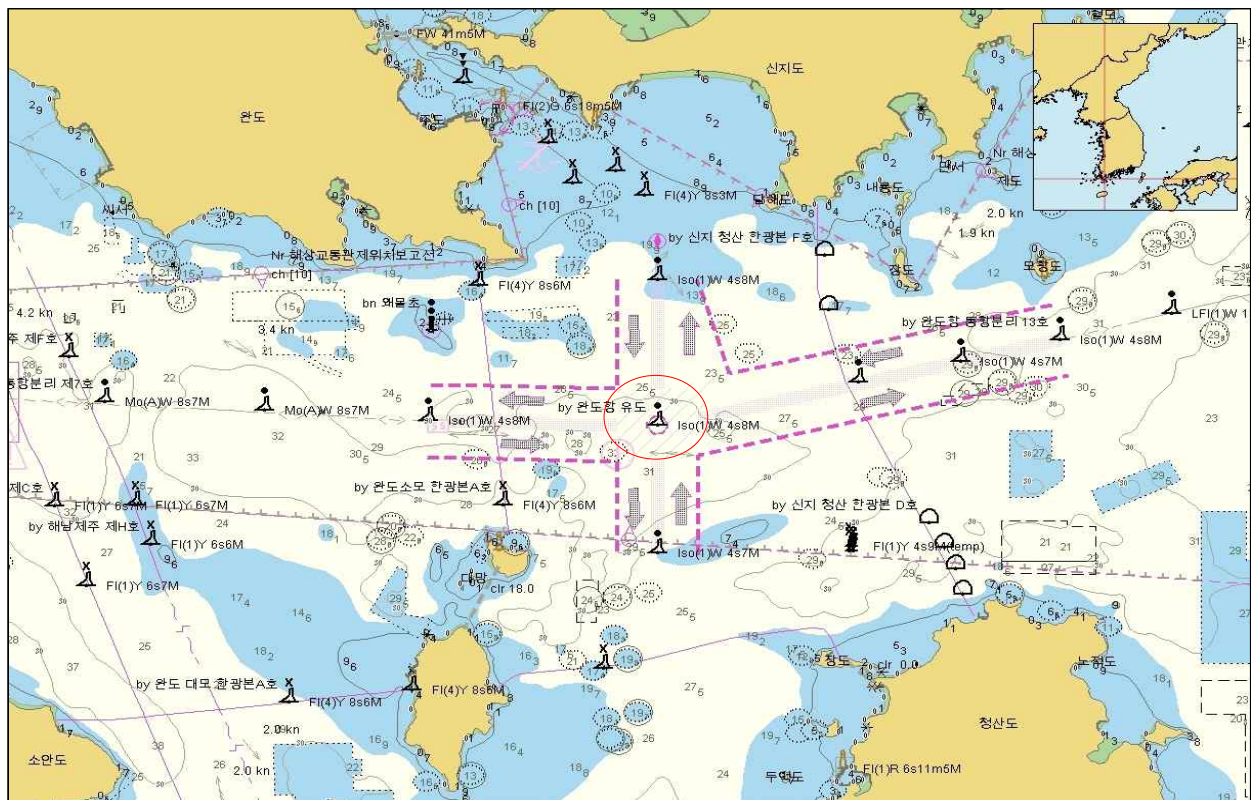
아울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주변 해상 기상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풍속계, 수온계 등 기상센서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완도항유도등부표가 통항량이 많은 중요 수역에 위치한 대형 등부표인 만큼 정비 기간 동안 안전운항과 저속운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항로표지 정비를 통해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책임자	소 장	구자현 (061-542-9660)
		담당자	주무관	강주원 (061-544-4461)

참고

사진대지



완도항대형등부표 위치도 및 전경